

2025. 9. 3

해외동향부 (제 7240)

- 주요 뉴스: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예상치 하회 영국 장기 국채금리는 재정 우려에 급등
 - 미국 트럼프, 연준은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 자신의 건강 이상설은 가짜 뉴스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했으나 안정적. 9월 금리동결 전망 뒷받침
 - 중국, 러시아와 공정한 '글로벌 통치 및 관리체계(governance)' 위해 협력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불확실성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 기술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프랑스 재정 우려 등으로 1.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호관세 철회 시 재정악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독일은 영국·프랑스 재정 우려 등으로 4bp 상승하며 3주 만에 최고치

※ 뉴욕 1M NDF 증가 1393.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5.9원, 0.35% 상승). 한국 CDS 약보합

		9/2일	9/1일	전일대비			9/2일	9/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15.5	휴장	-0.69%	국채 금리 10y	미국	4.26%	휴장	+3bp
	유럽	543.17	551.43	-1.50%		독일	2.79%	2.75%	+4bp
	중국	3,858.1	3,875.5	-0.45%		영국	4.80%	4.75%	+5bp
	일본	42,310	42,189	+0.29%	CDS 5y	한국	20bp	20bp	-0bp
	한국	3,172.4	3,142.9	+0.94%		중국	43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32	97.77	+0.56%	위험 지표	EMBI+	-	353	-
	유로화	1.1640	1.1711	-0.61%		VIX	17.17	16.12	+6.51%
	엔화	148.36	147.18	-0.80%		WTI유	65.59	휴장	+2.47%
	위안화	7.1383	7.1377	-0.01%	원자재	구리	457.0	휴장	+1.13%
	원화	1,391.0	1,393.7	+0.19%		금	3,533.2	3,476.1	+1.6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예상치 하회. 영국 장기 국채금리는 재정 우려에 급등

-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는 48.7을 기록, 전월(48.0) 대비 상승했으나, 확장의 기준 50 하회하며 예상치(49.0) 대비 낮은 수준.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 등은 반등(47.1→51.4)했으나 생산 및 고용(각각 51.4→47.8, 43.4→43.8) 등은 부진한 상황. 지불가격지수는 전월비 하락(64.8→63.7)
- 시장에서는 생산 둔화로 부진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수주가 증가했으나 중기 측면에서 수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 아울러 지불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관세 여파로 제조업 활동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추정(Santander)
-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전월비 소폭 둔화(53.3→53.0)되었으나 계속해서 확장의 기준 50 상회. 7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1% 줄어 감소세 이어가면서 주택경기가 부진한 국면임을 시사.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주택경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 특히 영국 30년물 수익률(5.69% +5bp)은 27년 만의 최고치 나타냈고, 프랑스의 30년물 수익률(4.50% +5bp) 역시 약 16년 만에 최고 수준. 독일과 스페인(각각 3.41% +5bp, 4.29% +5bp)도 각각 장중 14년, 22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 이러한 현상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전망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재정 우려 때문. 영국에서는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로 정부 지출 축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프랑스 역시 긴축 재정 난항 등으로 내각 해산 가능성도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연준은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 자신의 건강 이상설은 가짜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연준을 통한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 또한 자신의 건강 악화설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 한편,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

■ 미국, TSMC 중국 기지의 포괄적 장비 반입 허가 철회. 이란産 원유 수입 기업 제재

- 미국 정부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 이에 중국 내 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될 전망. 한편, 재무부는 이란産 원유를 수입했다며 일부 이라크 기업에 제재 부과. 이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력 약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했으나 안정적. 9월 금리동결 전망 뒷받침

- 8월 소비자물가(HCIP)는 전년동월비 2.1% 올라 7월(2.0%)에 비해 상승세 강화. 다만 이는 ECB 목표(2.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역내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고려하면,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 ECB의 슈나벨 이사 또한 통화정책이 이미 다소 완화적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수용. 다만 안보 관련 컨센서스가 중요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 확인을 위한 컨센서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에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입 시도에는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부연

■ 중국, 러시아와 공정한 '글로벌 통치 및 관리체계(governance)' 위해 협력할 방침

- 중국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글로벌 통치 및 관리체계(governance)' 조성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 이에 대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하며, 현재 양국의 관계는 전례 없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화답
- 한편,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최대 500억입방미터 규모의 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JOLTS 구인건수, 연준 베이지북.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전세계 장기 국채, 수급 악화·계절적 요인 등으로 위험한 한 달(9월)에 직면 - 블룸버그

(World's Long-Dated Bonds Face a Traditionally Terrible Month)

- 지난 수년간 글로벌 장기 국채는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자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발행으로 취약성이 부각. 미국과 유럽에서의 지출 공약에 따른 정부 차입금 추가 확대 전망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 아울러 역사적 측면에서도 9월은 지난 10년간 세계 장기 국채가 2% 손실을 기록한 가장 부진한 시기(Bloomberg)
- 또한, 연준 금리인하 전망 및 중립성 논란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 가중,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계절적 요인에 의한 미국 회사채 및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이 9월 장기 국채 시장에 위험 요인. 단기적 측면에서 금주 예정된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와 일본 30년물 국채 발행 등에도 주의 요구

■ 미국 경제, 양호한 주요 지표 발표에도 체감 경기는 악화 - 블룸버그

(How can an economy this good feel this bad?)

- 2/4분기 GDP가 3.3%(전기비연율) 증가. 이외에도 기업투자 증가, 낮은 실업률, 합리적 수준의 인플레이션, 양호한 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경제는 호황 국면. 그러나 가계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 확산. 이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AI 확산과 관세 및 교역질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정치적 당파성 심화 등이 경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장기금리, 주택구매 여력 악화, 노동시장 악화 조짐 등 실제로 부정적인 지표들도 증가.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제가 이전보다 충격에 더 취약해진 것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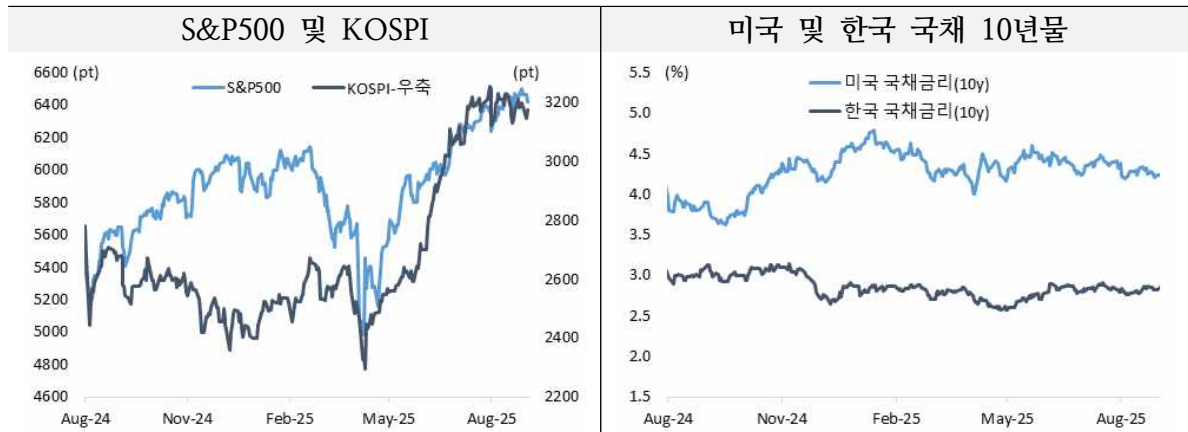
■ 미국 9월 증시, 금리인하 확산·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 - 블룸버그

(The Market Is a Bit Too Sure of the Fed)

-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시사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 하지만 이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모두 양방향 위험이 존재한다는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해석 오류 및 그에 따른 과도한 금리인하 확신의 결과. 이에 9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주가 상승을 유도했던 실적 발표 시즌도 마무리
- 이를 감안하면 시장의 관심은 9월 금리인하 여부 및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집중될 가능성. 아울러, 주가 고평가 논란 속 트럼프의 예측이 어려운 무역정책과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위험 등도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

- **아시아 경제,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션 심화될 우려 - The Economist**
(The threat of deflation stalks Asia's economies)
 -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으나, 아시아 10대 경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3%에 불과. 중국과 태국의 소비자물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의 여타 국가들도 디플레이션 국면에 근접. 또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 인도의 경우도 1~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년 이래 최저
 - 한편,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서는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인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 ▲수요부진 ▲노동력 공급증가로 인한 임금 하방 압력 등이 거론. 향후 트럼프 관세정책 여파로 아시아 국가들의 對美 수출이 감소되면, 신규 시장진출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 심화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
- **미국 8월 운송 가격 및 이용률의 현저한 하락, 경기침체 경고 신호일 소지 - 블룸버그**
(This Little-Known US Transport Gauge Is Flashing an Early Hint of Slowdown)
- **금융시장 움직임, 트럼프의 연준 공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 - Financial Times**
(Why the market is ignoring the attack on the Fed)
- **EU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 자본 확충 및 정치권 개혁 등이 요구 - 블룸버그**
(Does Europe Even Know What Competitiveness Means?)
- **영국의 재정건전성 개선, 장기 국채 발행 축소 및 IMF 권고안 이행 필요 - Financial Times**
(The UK is a fiscal saint, not a sinner)
- **국제 금 가격의 사상 최고치 경신, 금리인하 기대 속 재정부채 우려 반영 - 블룸버그**
(Gold Hits Record High on US Rate-Cut Bets, Growing Debt Concer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